

리포트

프랑스의 타이어산업 현황

기술부

1. 序言

여기에서는 최근 프랑스의 타이어부문, 특히 승용차용 및 상용차용 타이어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에 인용한 통계자료는 프랑스 정부의 통계자료와 무역통계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2. 自動車生産

(1) 승용차 생산

프랑스는 유럽에서 독일 다음에 두번째로 큰 승용차 생산국이며, 시장규모도 독일 다음으로 크다. 1980년대의 승용차 생산량은 260만대~290만대 사이를 오르내렸으나, 1987년에는 드디어 300만대를 돌파하였으며, 1989년에는 340만대로 피크를 이루었다.

(2) PSA

프랑스에서 가장 큰 자동차회사는 PSA그룹으로서, Peugeot, Citroën, Talbot의 3개 회사를 갖고 있다. 최근 PSA그룹의 자동차 총생산량은 소형 모델인 205가 크게 인기를 얻음으로써 많이 증가하였는데, 유럽을 통하여 많이 판매하였다.

(3) Renault

Peugeot의 승용차 생산량은 1984년 이후 6년간 131만대에서 198만대로 51.1%나 증가하였으나 Renault의 승용차 생산량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으며,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인 것은 1983년의 164만대였다. 그 후 3년간은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1986년에는 130만대, 1989년에는 145만대로 가장 많이 생산하였다. 1990년에 Peugeot의 승용차 생산량은 증가한 반면에 Renault의 승용차 생산량은 1989년 대비 9.8%가 감소한 132만대를 생산하는 데 그쳤다.

Renault는 1990년에 새로 개발한 소형 모델인 "Clio"가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및

〈표 1〉 프랑스의 승용차 생산현황(1980, 1985, 1988~1990)

(단위: 대)

연도 회사	1980	1985	1988	1989	1990
Renault	1,491,339	1,322,887	1,384,959	1,446,669	1,316,930
Citroën	536,366	479,385	681,333	772,423	689,965
Peugeot	607,033	804,139	1,157,695	1,189,925	1,287,920
기 타	302,843	25,915	-	-	-
계	2,938,581	2,632,366	3,223,987	3,409,017	2,294,815

자료: Comité des Constructeurs Français d'Automobiles.

국내시장에서 고전을 했다. 1980년대초부터 자동차 생산의 부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유럽의 승용차 생산회사 가운데 가장 생산량이 적은 회사의 하나가 되었다.

(4) 상용차 생산

상용차 생산량은 1980년대 상반기에는 감소하였으나, 하반기부터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9년에는 50만대를 생산하여 피크를 이루었다. 1990년에는 1989년과 거의 같은 47만대를 생산하였다.

상용차 생산량 가운데 60% 이상을 Renault사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1989년에 320만대를 생산하여 피크를 이루었으며, 1990년에는 300만대로 감소하였다. Peugeot는 상용차 생산량의 37%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회사의 상용차 생산량은 Renault와 같은 양상을 보여 1989년에 19만대를 생산하여 피크를 이루었으며, 1990년에는 17만대로 감소하였다.

Citroën 사의 상용차 생산량은 비교적 적으며, 주로 輕商用車(5톤)를 생산하고 있다. 이 회사의 5톤 이상 트럭 생산량은 1990년에 35,070대로서 1989년의 43,683대보다 감소하였다. Renault VI 모델 생산량을 트럭 총생산량에 포함시켰다.

〈표 2〉 프랑스의 상용차 생산현황(1980, 1985, 1988~1990)

(단위 : 대)

연도 회사	1980	1985	1988	1989	1990
Renault	220,846	214,016	295,677	324,508	299,174
Citroën	49,034	73,734	91,768	100,263	93,259
Peugeot	127,428	91,633	86,713	85,624	81,439
CBM	105	57	-	-	-
Sovam	113	89	80	67	75
Unic	17,809	99	61	72	-
Heuliez	-	-	179	225	231
계	439,852	383,740	474,478	510,759	474,178

자료 : Comité des Constructeurs Français d'Automobiles.

〈표 3〉 5톤 이상의 상용차 생산현황(1980, 1985, 1988~1990)

(단위 : 대)

연도 회사	1980	1985	1988	1989	1990
Renault VI	39,475	30,489	41,486	43,683	35,070
Unic	17,809	-	-	-	-
기 타	27	27	14	9	4

자료 : Comité des Constructeurs Français d'Automobiles.

3. 타이어生産

(1) Michelin 그룹

Michelin은 유럽에서 가장 큰 승용차용 및 상용차용 타이어회사로서 타이어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Michelin은 프랑스내에 20개의 타이어 공장을 갖고 있으며, 이 공장 가운데는 子會社인 Kléber, Wolber, Pneu Laurent 공장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Michelin은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 극동 등 전세계에 46개의 공장을 갖고 있다.

전세계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타이어 총생산량은 650,000개/日로서 이 생산량은 프랑스 타이어시장의 약 10%를 차지하는 양이다. 이 회사는 아프리카 및 남미에 천연고무 농장도 갖고 있으며, 프랑스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은 약 36,000명이다. 子會社인 Kléber는 프랑스에 2개의 공장(Toul, Troyes)을 갖고 있으며, 독일에도 1개가 있다.

(2) Englebert

프랑스에서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는 그밖의 타이어회사들은 대부분 Michelin보다 규모가 아주 작은 회사들이다. Uniroyal Englebert SNC사는 Clairoux공장에서 주로 승용차용 및 적은 양의 상용차용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이 회사는 프랑스에서 연간 약 600만개의 승용차용 타이어와 12,000개의 상용차용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회사는 독일, 벨기에, 스코틀랜드에도 공장을 갖고 있다.

(3) Dunlop

프랑스의 Dunlop은 일본의 Sumitomo 그룹이 持分을 갖고 있는 子會社로서 프랑스내에 3개의 타이어 공장(Amiens에 2개, Montluçon에 1개)을 갖고 있으며, 타이어 외에 테니스볼과 튜브도 생산하고 있다. 이 회사는 1개의 재생타이어공장도 갖고 있으며, 그밖의 3개의 공장에서는 자동차부품인 휠과 seat를 만들고 있다.

(4) Goodyear

프랑스의 Goodyear는 미국의 Goodyear가 持分을 갖고 있는 子會社로서 Amiens에 공장을 갖고 있으며, 북미 이외에도 28개의 공장을 갖고 있다. 프랑스에 있는 공장에는 약 2,000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다.

(5) Firestone

프랑스의 Firestone은 일본의 Bridgestone이 持分을 갖고 있는 子會社로서 Béthune에 23,000개/1일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갖고 있다. Firestone은 1990년에 Béthune공장에서 연간 60만개의 각종 브랜드 타이어를 생산하여 프랑스에서 가장 큰 Carrefour, Intermarché(Asphalt brand), Casino(Carstone), Cora(Le Pneu), Auchan(Kingstone)과 같은 하이퍼마켓 체인을 통하여 프랑스내에서 판매되고 있다. 타이어는 80시리즈 및 70시리즈 등 한정된 5개 규격만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는 Lyon에 재생타이어공장을 갖고 있으며,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에는 재생타이어 이외의 고무제품 생산공장을 갖고 있다.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은 약 1,800명이다.

(6) Continental

프랑스의 Continental SNC는 독일의 Continental AG가 모든 持分을 갖고 있으며, 프랑스의 Sicup 및 Sarreguemines에 2개의 공장을 갖고

〈표 4〉 프랑스의 승용차용 및 상용차용 타이어 생산현황 (1987~1990)

(단위 : 100만개)

종류	연도	1987	1988	1989	1990
	승용차용		49.6	54.2	54.8
상용차용		5.6	5.8	6.0	5.9
계		55.2	60.0	60.8	57.6

자료 : Eurostat.

있다. 이 회사는 Uniroyal그룹에 속해 있던 Uniroyal공장에서 분리된 독일의 4개 공장(오스트리아 및 아일랜드에 있는 2개의 Semperit공장도)을 경영하고 있다.

4. 輸入 · 輸出

프랑스에서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는 많은 다국적 타이어회사들은 다른 국가에 있는 자기 그룹의 회사와 타이어 수입·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많은 다국적 타이어회사들은 그룹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어떤 특정규격의 타이어를 분업화하여 생산할 것인지? 또는 어떤 국가의 어떤 공장에서만 생산할 것인지? 를 결정하여야 된다.

Michelin은 프랑스 최대의 타이어 수출회사로서 프랑스 이외의 세계 각 공장에서 생산하는

〈표 5〉 승용차용 및 상용차용 타이어 수입·수출현황 (1989~1990)

(단위 : 1,000개, 100만프랑)

종류	구분	연도		연도	
		1989	1990	1989	1990
수입	승용차용 및 경상용차용	12,988	2,512	13,558	2,679
	트럭·버스용	1,640	1,439	1,652	1,367
	계	14,628	3,951	15,210	4,046
수출	승용차용 및 경상용차용	33,680	5,945	33,964	5,835
	트럭·버스용	4,105	3,536	3,918	3,231
	계	37,785	9,481	37,882	9,066

資料 : Ministère de l'Economie.

생산량의 약 90%를 수출하고 있다. Michelin은 세계의 모든 승용차용 및 트럭용 타이어회사들 가운데 신차용 타이어를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다.

독일에서 타이어를 많이 수입하고 있다. Michelin은 독일에 6개의 공장을 갖고 있으며, Continental은 4개, Kléber는 1개, Pirelli는 3개, Uniroyal은 1개의 공장을 갖고 있다.

이탈리아로부터의 수입량은 이탈리아에 있는

Pirelli의 8개 공장 및 Michelin의 6개 공장에서의 생산량과 맞먹는다. 또한 영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주로 영국에 있는 4개의 Michelin타이어 공장 및 스코틀랜드에 있는 Continental공장에서 만든 것과 맞먹는다.

스페인에 있는 Michelin의 4개 공장 및 Pirelli와 Firestone의 2개 공장에서 생산된 타이어도 수입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로부터 수입되는 타이어는 주로 오스트리아의 Semperit사에 속해 있는 Sava공장에서 만든 것이며, 이 회사는 다시 Continental 그룹으로 넘어갔다.

〈표 6〉 국가별 승용차용 타이어 수출현황(1989~1990)
(단위 : 1,000개, 100만프랑)

연도 국가별	1989		1990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EC	25,269	4,298	25,732	4,393
벨기에/룩셈부르크	4,272	631	4,115	606
네덜란드	1,310	227	1,266	218
독 일	8,862	1,597	9,225	1,670
이탈리아	4,613	745	4,477	729
영 국	3,713	555	3,422	585
스 페 인	1,715	323	1,874	355
스 웨 덴	1,133	262	1,043	227
스 위 스	1,332	266	987	210
미 국	2,007	341	2,667	355
계	33,680	5,945	33,964	5,385

자료 : Ministère de l'Economie.

〈표 7〉 국가별 승용차용 타이어 수입현황(1989~1990)
(단위 : 1,000개, 100만프랑)

연도 국가별	1989		1990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EC	11,291	2,206	11,646	2,325
벨기에/룩셈부르크	195	36	169	33
네덜란드	269	46	352	55
독 일	3,665	770	3,548	778
이탈리아	3,377	661	3,345	663
영 국	1,560	295	2,040	397
스 페 인	1,734	336	1,589	315
유고슬라비아	368	45	459	48
일 본	471	94	556	116
계	12,988	2,511	13,558	2,679

자료 : Ministère de l'Economie.

(1) 輸 入

프랑스의 공식적인 타이어 수입통계만을 보면 수입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에는 타이어 수입이 약 140만개나 되었다. 가장 많이 수입을 한 회사는 타이어 도매를 주로 하는 Belgian Deldo Autobanden이다. 주로 EC국가들로부터 가격이 각각 다른 타이어가 많이 수입되고 있다.

다국적 타이어회사의 경우에도 국가에 따라 타이어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타이어가 어떤 국가에서는 저렴하고, 어떤 국가에서는 고가인 경우 고가의 타이어를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저가 타이어를 생산하는 국가의 타이어를 수입하게 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모든 국내 타이어 판매회사들은 수입타이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Michelin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떤 규격의 타이어 가격은 공식적인 가격과 수입가격에 차이가 있으며, 공식적인 가격이 수입가격보다 15%나 고가이기 때문에 타이어회사들은 할 수 없이 수입타이어와 가격경쟁을 하기 위해 자기들의 판매이익을 줄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승용차회사에서는 타이어를 공급하는 회사들에게 타이어 판매 마진폭을 줄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타이어회사들은 판매마진을 낼 수

있는 타이어는 교환용 타이어밖에 없기 때문에 저가 수입타이어와 치열한 가격경쟁을 하고 있다.

5. 市場動向

(1) 경기회복

프랑스는 1988년과 1989년 2년동안 타이어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1990년에 약간 회복되어 타이어 총판매량은 3,500만개에 이르렀는데, 이 가운데 1,380만개는 신차용 타이어였다. 1990년에 신차용 타이어 판매량은 조금 회복되었으며 교환용 타이어 판매량은 보통 수준이었다.

1990년에는 신차용 타이어 가격이 20~25% 떨어진 것이 특이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차용 타이어 판매는 타이어 내수판매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판매추세

신차용 타이어시장에서 80시리즈 타이어는 점차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다. 1987~1989년 사이에 80시리즈 타이어의 시장점유율은 13%가 감소하였으며, 1987년에 30%이던 것이 1990년에는 15%로 감소하였다.

70시리즈 타이어의 시장점유율은 1987년의 54%에서 1989년에는 65.5%로 피크를 이루었으며, 1990년에는 62%로 감소하였다. 또한 70시리즈보다 편평비가 낮은 시리즈 타이어의 점유율은 3년전에 15~17%이던 것이 1990년에는 23%로 증가하였다.

고속용 타이어 판매현황을 보면 속도기호 T타이어(190km/hr)의 시장점유율은 1987년에 57%였으나 1990년에는 35%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전체 신차용 타이어 판매량중 T타이어의 점유율이 1/2정도인 데 반하여 고속용 H(210km/hr), V(240km/hr), Z(240km/hr 이상) 타이어의 점유율은 4년동안에 걸쳐 3~4%에서 10~13%로 증

가하였다.

(3) 교환용 타이어 판매현황

1988년과 1989년에는 교환용 승용차용 타이어의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1990년에는 1989년의 1,880만개보다 4.7%가 증가한 1,970만개로 늘어났다. 이와 같이 1990년에 교환용 승용차용 타이어 판매량이 증가한 주요한 원인은 1989년에는 이상난동으로 교환용 승용차용 타이어 판매량중 겨울용 타이어 판매량이 감소(1988년에 310만개에서 1989년에는 130만개로 절반 정도)함에 따라 교환용 승용차용 타이어 총판매량이 감소하였는데 반하여 1990년에는 겨울용 타이어 판매량이 30%나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신차용 타이어로 장착한 규격의 타이어가 교환용 타이어시장에서 판매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신차용으로 장착한 타이어를 완전히 다 사용하여 새 타이어로 교환하기까지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1987년에는 교환용 승용차용 타이어 판매량중 80시리즈 타이어가 약 71%였으나, 1990년에는 52%로 감소하였다. 70시리즈 타이어는 1987년의 20%에서 1990년에는 33%로 증가하였다.

1990년에 판매된 신차용 경상용차용 타이어는 약 57만개로서 1988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으며, 60만개가 피크였다.

(4) 경상용차용 타이어 판매량

경상용차용 타이어 판매량은 1987년에 106만

〈표 8〉 승용차용 타이어 판매현황(1987~1990)

(단위 : 1,000개)

종류 \ 연도	1987	1988	1989	1990
신차용	12,300	12,590	13,385	13,704
교환용	19,976	19,292	18,800	19,700
계	32,276	31,882	32,185	33,404

자료 : Trade information.

개였던 것이 1989년에는 103만개로 감소하였다가 1990년에는 106만개로 증가하였다. 교환용 타이어의 교환율은 1987년의 0.86%에서 1990년에는 0.78%로 감소하였다.

(5) 그밖의 상용차용 타이어 판매량

중·대형 트럭용 타이어 판매량은 1987년의 37만개에서 1989년에는 45만개로 증가하였다가 1990년에는 41만개로 감소하였다. 교환용 타이어 판매량은 1987년의 106만개에서 1990년에는 119만개로 증가하였다.

〈표 9〉 상용차용 타이어 판매현황(1987~1990)
(단위: 1,000개)

종류 \ 연도	1987	1988	1989	1990
신차용	939	1,013	1,070	985
교환용	2,125	2,200	2,222	2,250
계	3,064	3,213	3,292	3,235

자료: Trade information.

(6) 신차용 타이어회사

Michelin은 프랑스의 신차용 및 교환용 타이어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신차용 타이어 판매에 있어서는 총판매량의 58%를 점유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타이어의 약 45%는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신차용 타이어로

〈표 10〉 신차용 타이어(승용차, 경상용차)의 회사별 점유율
(단위: %)

회 사 별	점 유 율
Michelin	58
Uniroyal	9
Dunlop	8
Goodyear	8
Kléber	8
Continental	6
Pirelli	3
계	100

자료: Trade information.

판매되고 있다. Michelin은 주요 자동차회사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는데, Citroën사에 공급하는 타이어는 거의 독점하고 있으며, Peugeot사에는 사용량의 54%를, Renault사에는 사용량의 40%를 공급하고 있다.

Kléber는 Michelin의 자회사로서 타이어 총생산량의 약 45%를 신차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은 프랑스의 신차용 타이어 총판매량의 8%, 교환용 타이어 총판매량의 6%를 점유하는 것이다.

두번째로 신차용 타이어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Uniroyal로서 이 회사는 1990년까지 Peugeot와 Renault에 신차용 승용차용 타이어를 공급하였다. 이 회사의 타이어 총판매량중 약 50%는 신차용 타이어인데, 1990년에는 프랑스 신차용 타이어시장의 9%를 점유했다. 1991년도의 Uniroyal의 판매정책은 교환용 타이어시장의 2/3를 점유하는 것이다. 1990년 이후 Uniroyal은 Renault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중단했다. 현재 Continental그룹의 정책은 2개의 브랜드를 갖지 않는 것이며, 또한 Uniroyal과 Continental은 신차용 타이어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에서 Kléber와 Dunlop은 신차용 타이어 시장 점유율은 거의 같지만, 신차용 승용차용 타이어 판매비율이 36%나 되기 때문에 이 신차용 승용차용 타이어를 많이 판매하려고 양사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Goodyear는 신차용 타이어시장 점유율이 8%로서 안정되어 있으며, Pirelli는 신차용 타이어시장 점유율이 3.5%로서 신차용 타이어회사들 가운데 가장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7) 교환용 타이어회사

Michelin은 교환용 타이어시장도 주도하고 있으나, 교환용 타이어의 시장점유율은 50% 이하이다. 나머지 50%는 다른 타이어회사들이 거의

같은 비율로 점유하고 있다. Michelin은 승용차 보유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환용 타이어 판매량이 증가하겠지만 이 증가되는 교환용 승용차용 타이어를 Michelin이 모두 판매할 수는 없다. 1990년도에 Michelin의 교환용 타이어시장 점유율은 약 45% 이하일 것으로 추정된다. 교환용 타이어는 軍 및 공공기관에서 자동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 일본 Bridgestone의 子會社인 Firestone이 교환용 타이어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교환용 타이어시장도 괄목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 회사의 교환용 타이어 판매량은 약 240만개로 추정되고 있다. Firestone은 주로 카센터, 하이퍼마켓 같은 대형유통망을 통하여 교환용 타이어를 판매하고 있다. 또한 Firestone의 교환용 타이어 시장 점유율은 이 회사의 교환용 타이어 총판매량중 25%를 차지하는 카센터, 하이퍼마켓 요구 브랜드 타이어 판매를 포함하여 약 12%이다. 현재 Firestone은 1991년부터 Renault 자동차회사에 신차용 타이어도 공급하는 등 신차용 타이어 시장에도 진출하였다.

교환용 타이어시장 점유율이 세번째인 회사는 Dunlop으로서 점유율은 9%이다. Dunlop은 과거 몇년동안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원가절감을 하여 경영상태가 호전되었다. 교환용타이어시장 점유율이 네번째인 회사는 Goodyear이며, 시장점유율은 6%로서 Goodyear 및 Kelly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다. 다섯번째 회사는 Kléber이며, 교환용 타이어시장 점유율은 6%이고, 여섯번째 회사는 Uniroyal로서 교환용 타이어시장 점유율은 5.5%이다. Uniroyal과 Conti 브랜드를 포함한 Continental 그룹의 프랑스에서의 교환용 타이어시장 점유율은 8.5%로서, 이 그룹의 신차용 타이어시장 점유율과 비교하면 아주 적다.

Pirelli의 교환용 타이어시장 점유율과 신차용 타이어시장 점유율은 3%로서 같다. 유럽의 겨울용 타이어 판매는 변덕스러운 유럽의 겨울 날씨

에 좌우되는데, 네덜란드의 Vredestein 타이어회사는 이 유럽의 겨울 날씨를 잘 판단하여 겨울용 타이어를 전문으로 판매하고 있어 프랑스에 있는 Pirelli와 같은 조그마한 회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겨울용 타이어의 수요를 잘 맞추어 高價로 판매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Vredestein사는 Avon 타이어를 수입하여 판매도 하고 있다.

(8) 타이어 수입회사

교환용 타이어시장의 나머지 30%는 크고 작은 수입회사가 수입한 수입타이어가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타이어 수입회사로는 Copadex, Seda, Dipropneu, K'Dis Sonamia가 있다.

시장점유율이 1.2%인 Capadex가 수입하는 타이어는 포르투갈의 Mabor 및 미국의 General 타이어에서 만든 승용차용 타이어이다. 상용차용 타이어는 헝가리의 Taurus 브랜드의 타이어를 수입하고 있다.

Seda는 세번째로 큰 타이어 수입회사로서 주로 일본의 Yokohama, 유고슬라비아의 Sava 브랜드 및 스위스의 타이어회사인 Maloya의 타이어를 수입하고 있다. 이 회사는 타이어를 수입하

〈표 11〉 승용차용 및 경상용차용 타이어의 교환용 타이어 시장 점유율(1990) (단위: %)

회 사 별	점 유 율
Michelin	45.0
Firestone	11.0
Dunlop	9.0
Goodyear	8.0
Kléber	6.0
Uniroyal	5.5
Pirelli	3.0
Continental	3.0
Vredestein	1.5
Bridgestone	1.0
기 타	7.0

자료: Trade information.

〈표 12〉 상용차용 타이어 국가별 수출현황(1989~1990)
(단위 : 1,000개, 100만프랑)

국가별	연도 구분	1989		1990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EC		2,584	2,134	2,685	2,122
벨기에/룩셈부르크		213	184	259	203
네덜란드		219	206	205	215
독 일		524	609	531	572
이탈리아		711	453	784	490
영 국		434	312	406	278
스 페 인		328	234	337	242
스 웨 덴		161	235	145	202
미 국		439	290	243	153
계		4,105	3,535	3,918	3,232

자료 : INSEE.

〈표 13〉 상용차용 타이어 국가별 수입현황(1989~1990)
(단위 : 1,000개, 100만프랑)

국가별	연도 구분	1989		1990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EC		1,403	1,221	1,409	1,159
벨기에/룩셈부르크		179	193	99	107
네덜란드		14	22	18	25
독 일		545	391	495	354
이탈리아		257	177	333	195
영 국		269	315	304	313
스 페 인		136	121	153	162
일 본		106	96	125	105
계		1,640	1,439	1,651	1,367

자료 : Ministère de l'Economie.

여 Point S 타이어 판매체인점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

K'Dis도 타이어 판매체인점인 Vulcopneu Plus와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 회사는 한국에서 2개, 중국에서 1개, 터키에서 1개의 브랜드를 수입하고 있다. Dipropneu의 시장점유율은 1.7%이며, 유고슬라비아에서 상용차용 타이어 브랜드인 Tigar 및 Rekord, 폴란드에서 Stomil, 대만에서 Hwa Fong, 스칸디나비아에서 Finnish 브랜드인 Nokia 및 Swedish Viskafor 브랜드 타

이어를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사의 총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일본의 Toyo브랜드이다. Toyo는 프랑스에 販賣子會社를 설립하여 판매망도 재구축하였다. 다른 또 하나의 큰 타이어 수입회사는 Sonamia로서 오스트리아 타이어 브랜드인 Semperit(Piot Pneu와 경쟁), 대만의 농업기계용 브랜드인 Natier를 판매하고 있다.

6. 流通構造

(1) 타이어 전문소매점

프랑스에서는 교환용 타이어 판매를 주로 전문소매점에서 많이 하고 있어 1985년에는 이 전문소매점에서의 판매비율이 35%였으나 최근에는 25%로 감소하였다. 자동차회사의 판매자회사, 대리점, 딜러들의 교환용 타이어 판매비율도 약 25%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Auto센터 및 하이퍼마켓에 속해 있는 Auto센터에서도 타이어를 많이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곳에서의 판매비율이 35%나 되어 과거부터 타이어를 많이 판매해온 서비스점에서의 판매시장을 잠식하여 서비스점의 판매비율이 1980년대 중반의 10%에서 5%로 감소하였다.

(2) 하이퍼마켓 체인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하이퍼마켓 체인에서는 자기들의 하이퍼마켓 체인 브랜드 타이어를 Firestone에 의뢰하여 만들어서 Firestone 타이어 브랜드 타이어보다 품질은 더 좋으면서 가격은 20%나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이퍼마켓 체인을 통하여 판매되는 타이어는 타이어 총판매량중 5%를 넘지 않을 것 같으며, 이 비율은 더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타이어 판매방법이 하이퍼마켓 주차장 부근에 있는 Auto센터에서 타이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Auto센터에서는 타이어를 장착할 수 있는 시

설을 갖고 있다. 앞으로 타이어 판매점에서는 타이어 장착 및 공기압조정과 같은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타이어 판매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3) 타이어 전문소매점의 감소

최근에 타이어 전문소매점이 감소하고 있다. 1990년 약 1,600개로 추정되는 타이어 전문소매점 가운데 25%만이 독립전문소매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머지 전문소매점은 타이어회사 또는 수입 타이어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다. Michelin은 320개의 타이어 전문소매점을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160개 이상은 Pneu의 지배를 받고 있다.

Michelin은 Central Pneu 타이어 판매망을 갖고 있는데 이 판매망은 프랑스에서 두번째로 크며, 또한 아주 작은 다른 판매망인 Vallée Pneu와 Briday Pneu도 갖고 있다. Michelin은 이와 같은 판매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타이어회사 및 저가 타이어와의 치열한 경쟁에서도 이겨내어 교환용타이어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Michelin의 타이어 판매망에서도 Michelin 이외의 다른 타이어회사 브랜드 타이어를 판매하고 있다.

Bridgestone의 판매망정책도 Michelin과 같으며, 5개의 전문판매회사가 운영하는 25개의 판매점을 갖고 있다. 이들 전문판매회사로는 Metifiot(10개 판매점), Caronnier(7개 판매점), Gay Frères(5개 판매점), Maxi Pneu(3개 판매점)가 있다. 이와 같은 전문판매회사는 자기들의 판매지역내에서는 Bridgestone 타이어만 판매하여야 하지만, 프랑스 타이어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일본의 타이어회사에 한해서 450개의 소매점과 판매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Bridgestone 타이어 판매지역내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4) 주요 타이어 판매망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Seda사는 230개의

전문판매점을 갖고 있는 Point S와 같이 중앙구입그룹 같은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타이어를 공급 및 수입을 하고 있다.

두번째로 큰 타이어 전문판매회사는 102개의 판매점을 갖고 있는 Vulcopneu로서, 이 Vulcopneu는 Vulcopneu 형태의 Pneu Holding(120개 판매점)과 관련되어 있다. 수입회사인 K'Dis는 222개의 판매점을 갖고 있다. 가장 규모가 작은 타이어 전문판매회사는 9개의 판매점을 갖고 있는 Kautzmann Stiness로서 모든 Alsace 지역의 판매를 카바하고 있다. 이 회사는 독일회사의 子會社이다.

(5) 구입그룹

다른 타이어 전문판매회사는 2개의 구입그룹에 포함되어 있다. 이 2개의 구입그룹중에서 가장 큰 그룹은 1980년대 중반에 설립한 약 210개의 판매점을 갖고 있는 Arc en Ciel이며, 작은 구입그룹은 107개의 판매점을 갖고 있는 Panthère이다.

타이어를 일괄구입하는 회사들은 항상 자기들의 판매점을 위하여 좋은 가격 및 조건으로 구입하고자 협의를 하고 있다. Panthère는 4개 지역에 2개의 대형 타이어 구매회사를 갖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는 56개의 판매점을 갖고 있는 European Tyre Distribution이고, 다른 하나는 85개의 판매점을 갖고 있는 Groupement des Professionnels du Pneumatique이다.

(6) 독립소매점

모든 타이어 전문소매점들 가운데 아직도 25% 이상이 독립판매를 하고 있다. 이들 독립판매를 하는 회사중에는 규모가 매우 크고 많은 판매점을 갖고 있는 것도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회사는 46개의 판매점을 갖고 있으면서 주로 프랑스 동부지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DK사이다.

또한 30개의 판매점을 갖고 있으면서 주로 프

〈표 14〉 프랑스의 주요 타이어 판매점별 시장점유율
(단위: %)

종 류	점 유 율
타이어 전문판매점	26
타이어회사 판매점	24
Auto센터	16
하이퍼마켓 ^a	20
자동차정비소	6
서비스센터	4
자동차 약세서리 판매점	3
기 타	1

a: 이 중에 하이퍼마켓에 속해 있는 Auto센터는 15%이다.
자료: Trade information.

랑스 남부지역에서 가장 많은 타이어를 판매하고 있는 Ayme가 있으며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10개의 판매점을 갖고 있는 Ayasse와 30개의 판매점을 갖고 있는 Marsat도 있다. 약 300개의 규모가 작은 소매점들은 독립판매회사로부터 탈퇴하여 독립소매점으로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으나 어려울 것 같다.

(7) 再生타이어

아직도 프랑스의 재생타이어시장은 유지되고 있다. 프랑스의 재생타이어시장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시장규모가 커서 1990년에는 270만개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Syndicat National du Caoutchouc et des Plastiques의 공식적인 통계자료에 의하면 258만개로 되어 있는데, 재생타이어업계에서는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SNCP의 공식적인 통계자료에는 SNCP에 가입한 회원사의 재생타이어에 대한 통계만 나와있는데, 실제로는 많은 재생타이어회사들이 이 SNCP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에는 재생타이어만 만들고 있는 회사가 약 40개가 있으며, 가장 규모가 큰 재생타이어회사는 Michelin의 子會社인 Laurent로서 이 회사의 프랑스 재생타이어시장 점유율은 18%이다. 두번째로 큰 재생타이어회사는 1984년에 설립된 Recam으로서 이 회사에서는 여러가지 고무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재생타이어는 총매출액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Recam도 Laurent와 같이 재생타이어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1990년도 재생타이어 판매량은 60만개였으며, 생산능력은 2,400개/1일이다. Recam은 전국에 67개의 자체 판매점을 갖고 있으며, 25개의 다른 판매점도 갖고 있다.

세번째로 큰 재생타이어회사는 Chautard로서 이 회사의 재생타이어시장 점유율은 9%이다. 이 회사는 1990년도에 Daytona브랜드 재생타이어를 25만개나 판매하여 최근에 재생타이어 판매량이 35%나 증가하였다.

그밖의 재생타이어회사로서는 Escoffier, Scop, Sodirec사가 있는데, 이들 각 회사들의 재생타이어시장 점유율은 약 4~5%이며, 많은 기타 다른 재생타이어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약 1~2%가 된다.

재생타이어 가격은 신생타이어 가격의 약 40% 이하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로부터 수입되는 低價 타이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되고 있다.

재생타이어의 원단으로서로는 주로 Michelin 타이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Continental, Uniroyal, Goodyear, Kléber, Dunlop, Bridgestone 타이어도 사용되고 있다.

자료: EIU Rubber Trends/December 1991.

번역: 李源善/協會 技術部長